

이슈브리핑18-8

러시아 3·18 대선, 지정학 이슈가 지배하다

ISSUE
BRIEFING

2018

0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러시아 3·18 대선, 지정학 이슈가 지배하다

장세호(대외전략연구실)

예상대로였다. 네 번째 대통령 권좌에 도전한 푸틴은 지난 3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 아니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8명이라는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경쟁했던 이번 대선에서 푸틴은 76.69%라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득표율로 나머지 7명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푸틴은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 수의 과반을 초과하는 5천 6백만여 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실 푸틴은 지난 2016년 여름 크렘린궁에 자신에 대한 기존의 지지 기반을 크게 확장하는 선거 결과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집권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과 피로감을 수치화된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로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집권 4기의 안정적 확립과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크렘린궁은 투명한 선거, 높은 투표율, 압도적 득표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 ‘70-70’ 전략(투표율 70%, 득표율 70%) 수립으로 화답했다.

이 목표들은 모두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번 대선은 이른바 ‘깨끗한 선거’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앞서 말한 대로 2011년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게 이번 대선의 제1과제는 투명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었다. 일찌감치 각 지역에 관성적 선거부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하달됐고, 2017년 9·18 지방선거를 통해 예행연습까지 마쳤다. 일부 투표소에서 나타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문제 투표소의 투표 전체를 즉각 무효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러시아 대통령 선거 참관단장의 “일부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됐다”는 논평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 직후 주요국 지도자들도 일제히 푸틴에게 당선 축전을 전했을 만큼 이번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상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선 기간에 수행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은 모두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을 예상했다. 대체로 직전 두 차례 대선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50% 중반의 투표율이 전망됐다. 극적 요소가 없는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할 리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올해 대선의 투표율은 2012년의 65.34%를 약 2.6% 상회하는 67.98%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결과가 예정된 선거에 심드렁했던 유권자들을 다시금 투표소로 이끈 요인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크렘린궁과 지역 정부들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지역 단위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심지어 경품 제공, 식료품 할인, 무료 암 검진 서비스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푸틴 역시 선거를 이틀 앞두고 러시아연방 주권의 원천은 국민이며,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에 꼭 참여하라고 독려했다. 결정타는 다름 아닌 영국으로 망명한 이중간첩 암살 시도 사건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외교 갈등 비화였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 결집을 도와준 서방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조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셋째, 푸틴의 기록적 득표율과 득표수도 인상적이다. 푸틴은 자신의 네 차례 대선 참여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과 득표수를 기록하며 이론의 여지없는 압승을 거뒀다. 사실 선거 기간의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 푸틴은 줄곧 6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푸틴이 실제 선거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76.69%였다. 선거 막판 유권자의 표심이 푸틴에게 결집됐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필자는 이를 러시아가 외부의 적들(서방)에 의해 겹겹이 포위돼 주권을 위협 받고 있다는 이른바 ‘포위된 요새’ 개념 위에서, 이러한 상

황을 돌파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푸틴 일병 구하기’ 논리가 주효한 결과로 평가한다. 사실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푸틴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러시아인의 투표행태는 마치 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CEO에게 동종 회사와의 갈등이 첨예화하자 격려 차원에서 ‘특별 상여금’까지 없어 준 것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올해 대선을 지배한 것은 ‘지정학적 이슈’였다. 그리고 이번 3·18 대선은 러시아 국민의 ‘푸틴에 대한 평가·태도’가 중요했다기보다 ‘외부의 적대적 환경에 대한 평가·태도’가 중요했던 선거였다.

어쩌면 크렘린궁은 올해 대선을 처음부터 이런 구도로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다. 떠들썩한 출마 선언 이후 특이하게도 푸틴은 막상 선거전의 막이 오르자 오히려 휴지기를 가졌다. 그러다 갑자기 3월 1일 국정연설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미국·서방의 오만하고 위협적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러시아의 첨단무기를 소개하고 국가안보태세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시연했다. 사실 푸틴은 이번 선거에서 이렇다 할 선거 정책·공약도 내놓지 않았고 TV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번 3.18 대선에서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이슈보다 대외관계 이슈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한편,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보다 자신이 이룬 과거와 현재의 성취를 새로운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 이제 와서야 투표일을 3월 11일에서 크림이 병합된 3월 18일로 바꾼 것이나, 콘드라쇼프의 다큐멘터리에서 푸틴이 배신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선거를 며칠 앞두고 크림에 방문한 것이나, 하필 그때에 스크리팔 암살 시도가 발생하고 영국과 외교적 마찰이 심화된 것이 이해가 된다.

대선은 끝났다. 이제 푸틴은 한 달 보름 후면 집권 4기라는 새로운 6년의 여정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필자는 러시아 유권자들이 올해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드러내려 했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미국과 서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현 러시아의 집권 엘리트들이 냉철히 살펴봐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반서구주의와 핵심 이익 지역에서의 군사력 투사는 결코 일부 엘리트 집단의 모험주의적 맹동주의의 발로가 아니다. 적어도 러시아 엘리트와 대중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수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의 인식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푸틴과 푸틴체제만 전복·교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이 위험한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인들은 이번 3·18 대선을 통해 자신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개선보다 국가의 주권과 안보의 중요성이 우선함을 인정했을 뿐 푸틴에게 삶의 질 개선 문제를 무시해도 좋다거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을 선물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는 전략적 관점의 수동적·제한적 지지로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러시아 집권세력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때 푸틴 집권 4기 동안의 긍정적 성취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